■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 사안별 엇갈린 반응

자율권 이양 '환영'…0교시·심야학습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의 대부분을 학교장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사안에 따른 교육주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학교에 자율권을 대폭 이양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우열반이나 0교시, 심야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정규수업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규제가 풀렸을 때 닥칠 혼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이용해 교과부 장관이 시행해온 행정규제 사무를 폐지 혹은 정비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한다는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며 "이제 학교가 수준별 교육, 학사운영의 자율권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율운영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0교시 수업과 심야보충수업 등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면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각까지 학교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 최모(47)씨는 "너무 아이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며 "자율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대입이 중요시되는 분위기에서라면 어떤 학교가 0교시나 심야보충수업을 하지 않으려 하겠냐"고 말했다.

방과후학교에서 학원의 강사들이 정규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중학생 이모(14)군은 "학원보다는 적은 돈으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어쨌든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회 이영선 사무국장은 "새 정부 들어서서 교육정책 뒤바뀔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훨씬 충격적이다. 인성 등 다양한 가치를 가르쳐야 할 학교를 입시전문학원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같다"며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계획이 전면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열반 편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고등학생 김모(17)군은 "수준에 맞는 학생들끼리 공부했을 때 능률이 더 오를 수 있겠지만 반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고, 친구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대준 정책실장은 "오늘 정부의 발표는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며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사교육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6일 오전 11시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최병량 교육국장은 "교과부 발표에 맞춰 TF팀을 구성해 학교 교육의 다양화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정책들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소한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 차원의 규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남대 총장 후보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최용국)와 광주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강)는 15일 전남대 본부 소회의실에서 총장 후보자 4명을 초청, '제18대 전남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선거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북구선관위 정영오 사무국장, 총장 후보인 박형호·김윤수·이병택·김현태 교수, 총장임용추천위 최용국 위원장. 〈전남대 제공〉

'함평 민간인 학살' 등 국가 사과해야

과거사위, 위령사업 지원 권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5일 한국전쟁 시기에 빨치산 토벌을 이유로 국군에 의해 이뤄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사건'과 '고창 11사단 사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제11사단 20연대 2대대와 3대대가 함평군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월야면 등지에서 수복작전을 수행하면서 민간인 52명을 사살하고 2명을 부상케 한 사건이다.

3대대는 1950년 10월 22일 함평군 율동마을을 수색해 주민 8명을 사살한 데 이어 사거리 낙청동을 수색하던 중에 말실수를 한 주민 7명을 좌익으로 간주하여 살해하고 월산리 송산마을 등에서 7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희생자의 대다수는 국군과 빨치산과의 교전 직후 빨치산 및 빨치산 협력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부대이동 경로에 있던 마을의 주민들이며 가해 부대의 지휘계통은 국군 제11사단장, 제20연대장, 제2대대장과 3대대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 11사단 사건'은 195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북 고창군 일대에서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최소 273명 이상이 희생된 사건이다. /연합뉴스

대입전형 업무 5월말까지 대교협 이관

오는 5월 말까지 대입전형 관련 업무의 주체가 정부에서 대학 자율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로 전면 이양된다. 새 정부가 밝힌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1단계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교협·전문대교협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5월말부터 시행하고, 대교협법 및 전문대교협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삭제되고 기본계획 공표시기는 현행 1년9개월 전에서 1년6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대교협·전문대교협은 2010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올해 8월말까지 수립·공표하게 된다.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 공표 마감시한은 현행 1년6개월 전에서 1년3개월 전으로 바뀐다.

정부의 대학별 고사 심의 권한 역시 협의회로 넘어가며, 필요한 경우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대학별 교사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학생 선발일정 수립·공표 권한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 심의·처리 권한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 등이 협의회로 이양된다.

입법예고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공개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서해 갈치 등 고급어종 사라져간다

우리나라 서해에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갈치 등 고급어종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발간된 주간 해·어황 정보지를 바탕으로 서해 주요 어업자원의 변동 및 특성을 분석한 '황해 해·어황 정보'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황해 해·어황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에서의 어획량은 14만2천632t으로 1980년대 연평균 25만1천634t의 5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980년대에는 회유성 어종인 참조기와 갈치가 연평균 각각 3천900t(1.5%), 4만4천29t(17.6%)이 잡혀 서해 전체어획량의 19.1%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참조기와 갈치 어획량은 각각 2천719t(1.9%), 1천519t(1.1%)에 그쳤다. 대신 멸치가 2만t이나 잡혀 서해의 대표어종이 됐다.

이 같은 현상은 회유성 어종의 서해 유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서해의 어종이 수명이 긴 대형 고급어종에서 수명이 짧은 중·소형 저급어종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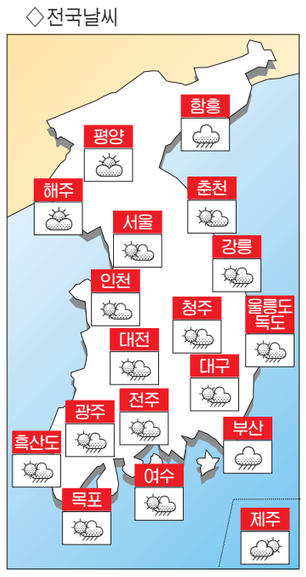
촉촉한 비

4월 16일 (음 3월 11일) 날씨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며 비가 오겠다.

◇전국날씨

광 주	흐린후 비	12~19℃
목 포	흐린후 비	10~18℃
여 수	흐린후 비	11~15℃
완 도	흐린후 비	10~17℃
구 례	흐린후 비	10~19℃
해 남	흐린후 비	9~18℃
장 흥	흐린후 비	9~18℃
고 흥	흐린후 비	10~15℃
순 천	흐린후 비	9~19℃
영 광	흐린후 비	9~18℃
진 도	흐린후 비	10~18℃
전 주	흐린후 비	10~21℃
남 원	흐린후 비	8~21℃
흑산도	흐림	9~13℃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 11:43 --:-- 썰물 〈 04:30 17:08
여 수 밀물 〈 06:44 19:08 썰물 〈 00:20 12:56

▲해뜸 05:59 ▲해짐 19:06 ▲달뜸 15:15 ▲달짐 03:4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날 씨						
최저/최고	11/21	9/23	9/24	10/25	10/22	12/18

서울대 지원자 가장 감명받은 책 과학 콘서트

지난해 서울대 수시모집 지원자들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정재승씨가 쓴 '과학콘서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서울대가 2008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들이 작성한 감명 깊은 도서 목록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45명이 정재승의 '과학콘서트'를 꼽아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연금술사(파울로 코엘료), '이기적 유전자'(리처드 도킨스), '삼국지'(나관중), '마시멜로 이야기'(호아킴 데 포사다) 등이 5위권에 들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에서 266명이 선택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한비야), 자연계열은 787명이 선택한 '과학콘서트', 예체능계열은 114명이 꼽은 '연금술사' 등이 각각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선정됐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故 윤한봉씨 형 윤광장씨 5·18기념재단 이사장에

제9대 5·18 기념재단 이사장에 윤광장(66·사진)씨가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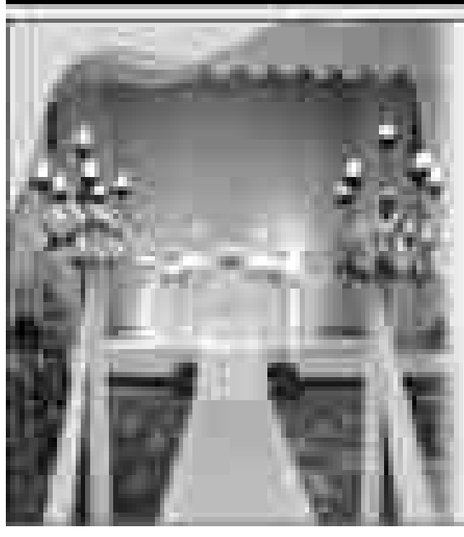
5·18 기념재단은 15일 이사회를 갖고 윤씨를 제9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윤 이사장은 "80년 오월 광주 시민들이 실천했던 나눔과 대동정신을 그동안 잘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5·18 마지막 수배자'로 유명한 고 윤한봉씨의 친형인 윤 이사장은 전남대를 졸업한 뒤 민주교육 광주·전남교사협의회 회장, 5·18 민중항쟁 구속자 동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 은빛 참교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사구점 ☎361-8111
북구점 ☎529-8111
개강 5월1일
합격
국비무료
새 행정고시학원
사구점 ☎361-8111
북구점 ☎520-8111

= 합격률 전국 1위 =
공인중개사 오전반 야간반
4월 첫진도 시작반
재직자 수강지원과정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대적 학습시설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과학적 평가시스템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36-2467~8
고객무료전화 080-0236-2468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6,500부터
☎062)228-8000 ☎062)228-4711~2